

구개음화

김주필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1. 서 언

국어에서 구개음화는 흔히 | [i]나 반모음 | [y] 앞에서 비구개음인 ㄷ, ㅌ, ㅌ이 각각 구개음 ㅈ, ㅊ, ㅌ으로 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구개음화 현상을 좀더 일반화시키면, | 나 반모음 | 앞에서 구개음 아닌 비구개음(非口蓋音)이 구개음으로 바뀌어 소리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어의 여러 방언 자료나 국어사 문헌 자료를 검토해 보면 구개음화에 해당되는 현상에 ㄷ, ㅌ, ㅌ이 각각 ㅈ, ㅊ, ㅌ으로 되는 현상만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현상 그 자체로는 구개음화로 보기 어렵지만 구개음화나 구개음과 관련되어 일어나는 현상도 여러 종류가 있다.

여기에서는 국어학 전공자가 아닌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어의 구개음화와 구개음 관련 현상의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조음음성학적인 관점에서 국어의 구개음과 음운 현상으로서의 구개음화가 갖는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이어서 구개음화 현상의 종류와 특징 및 구개음화나 구개음 관련 현상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여러 현상들이 표준어와 맞춤법 규정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를 간략하게 검토해 보기로 한다.

2. 구개음과 구개음화

2.1. 국어의 구개음

사람의 음성은 발음기관에서 만들어진다. 그 발음기관 가운데 목젖에서 윗잇몸까지를 입천장, 즉 구개라 한다. 구개는 입천장의 가운데 제일 높은 부분을 경계로 하여 그 앞부분은 딱딱하기 때문에 경구개라 하고 그 뒷부분은 여리기 때문에 연구개라 한다. 그러므로 구개음도 경구개 위치에서 발음되는 경구개음과 연구개에서 발음되는 연구개음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구개음이라 하면 흔히 경구개음을 말한다(이하 구개음은 경구개음을 지칭한다). 그러므로 구개음은 혀의 면(舌面)이 경구개에 가 닿음으로써,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이 장애를 받아 만들어지는 소리를 말한다.

국어에서 경구개의 위치에서 발음되는 모음에는 ㅈ이 있고 반모음에는 반모음 ㅉ이 있다. ㅈ는 전설모음으로서 발음되는 위치가 경구개 아래이며, 반모음 ㅉ도 혀와 입천장 사이가 더 좁혀지기는 하여도 같은 위치에서 발음된다. 그러므로 ㅈ와 반모음 ㅉ는 모음이나 반모음 가운데 가장 구개적인 성질을 지니는 소리라고 할 수 있다.

경구개 위치에서 발음되는 자음으로는 ㅈ, ㅉ, ㅊ이 있다. ㅈ, ㅉ, ㅊ은(서북 방언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구개음으로 실현되는 소리는 치조음으로 실현된다.) 그 뒤에 어떤 모음(혹은 반모음)이 오더라도 항상 구개음으로 실현된다. 이와 달리 ㄴ, ㄷ, ㅌ, ㅍ은 일반적으로는 치조음으로 실현되지만, ㅈ나 반모음 ㅉ 앞에서는 구개음으로 실현된다. ㄴ은 일반적으로 [n]으로 실현되지만 ‘가년린, 꽃닐’ 등에서와 같이 ㅈ나 반모음 ㅉ 앞의 ㄴ은 구개음 ㄴ[n]으로 실현된다. ㄷ도 일반적으로 [d]이나 [l]로 실현되지만, ‘달리다, 달력’의 두 번째 ㄷ과 같이, ㄷ 다음의 두 번째 ㄷ이 ㅈ나 반모음 ㅉ 앞에 올 때에는 구개음 ㄷ[d]로 실현된다. 그리고 ㅌ이나 ㅍ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각각 [s]와 [sʰ]로 실현되지만 ‘시계, 가선서, 날씨, 쏘’ 등에서처럼 ㅈ나 반모음 ㅉ 앞에 오는 ㅌ나 ㅍ도 구개음 ㅌ[tʰ]와 ㅍ[pʰ]로 실현된다.

이렇게 /ㄴ/, /ㄷ/, /ㅌ/, /ㅍ/이 ㅈ나 반모음 ㅉ 앞이 아닌 경우에는 치조음으로 실현되고, ㅈ나 반모음 ㅉ 앞에서는 구개음으로 실현되지만 우리는 이들을

같은 소리로 인식한다. 이러한 사정은 이들 소리가 나타나는 분포를 보아서도 알 수 있다. 이들 치조음과 구개음이 실현되는 환경이 각각 정해져 있고, 그 실현되는 환경을 서로 맞바꿀 수 없는 배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 소리가 단어나 형태소의 의미를 차이나게 하지 못하게 때문에 우리는 이들 위치에 따라 소리들을 묶어 하나의 음소로 간주한다. 음소문자인 한글에서 이들 두 부류의 소리를 묶어 각각 한 문자를 배당한 것으로도 이들이 하나의 음소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2. 음운현상으로서의 구개음화

하나의 음소가 그 뒤에 오는 음의 영향을 받아 음성적으로 달리 실현될 때 그 각각의 소리는 변이음이라고 한다. 말하자면 /ㄴ/, /ㄹ/, /ㅅ/, /ㅆ/은 |나 반모음 | 이외의 소리 앞에서 치조음으로 실현되는 변이음과 |나 반모음 | 앞에서 구개음으로 실현되는 변이음을 갖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 각각의 음소는 환경에 따라 치조변이음과 구개변이음으로 실현될 수 있는데, |나 반모음 | 앞에서는 구개변이음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어떤 음소가 특정한 환경에서 그 음소의 변이음 중의 한 소리로 실현되는 현상을 음성 현상이라 한다.

이와 달리 국어에는 두 음소가 결합될 때, 구개음이 아닌 어떤 한 음소가 |나 반모음 | 앞에서 구개음 음소, 즉 ㅅ, ㅆ, ㅈ으로 바뀌는 현상이 있다. '갈다'의 어간 '갈-'에 접사 '-이'가 결합된 '갈이'는 [가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치조음 ㅈ이 구개음 ㅈ으로 바뀌어 [가치]로 실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두 음소가 결합될 때, 어떤 음소의 변이음이 인접해 있는 소리의 영향으로 다른 음소의 변이음으로 바뀌어 실현되는 현상을 음운 현상이라 한다.

이러한 두 종류의 현상 중에서 음운론에서 주로 다루는 현상은 음성 현상이 아니라 음운 현상이다. 그러므로 이 두 종류의 구개음화 중에서 음운론에서 흔히 말하는 구개음화 현상은 음운 현상으로서의 구개음화를 말한다. 음성 현상으로서의 구개음화가, 다른 현상과 함께 복합적으로 적용된 결과 제3의 음운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면 음운론에서 다루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구개음화는 음운현상으로서의 구개음화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ㄷ, ㅌ, ㅌ이 |나 반모음 | 앞에서 각각 구개음 ㅈ, ㅊ, ㅉ으로 바뀌어 실현되는 현상으로 대표되는 구개음화 현상은 |나 반모음 |에 의해 ㄷ, ㅌ, ㅌ이 구개음으로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동화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구개음화가 동화 현상인 이유는 |나 반모음 |가 경구개의 영역에서 발음되는 소리이므로 |나 반모음 |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발음되는 소리는 구개음인 것이다. 그러므로 구개음화는 구개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소리(주로 치조음이나 연구개음)가 |나 반모음 |의 구개적 성질에 영향을 받아 그와 같거나 유사한 소리로 바뀌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동화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구개음화는 동화현상으로서 동화를 일으키는 동화주는 |나 반모음 |이고 동화가 되는 소리, 즉 피동화음은 그 앞에 있는 비구개음이 된다. 동화를 받는 소리가 동화주의 앞에 있으므로 역행동화 현상이고 동화주와 피동화음이 직접 연결되므로 직접동화현상인 것이다. 구개음화가 동화현상이기 때문에 동화된 음은 구개음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ㄷ이 바뀐 ㅈ은 구개음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ㅈ 계열의 소리가 15세기에는 구개음이 아니라 치조음으로 실현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가 있다. 만일 15세기에 치조음으로 실현되었다면 15세기에는 구개음화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15세기에도 |나 반모음 | 앞에서는 구개변이음으로 실현되었다는 주장도 있어 앞으로의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근대국어 시기에는 서북 방언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모든 환경에서 ㅈ, ㅊ, ㅉ이 구개음으로 실현되기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 구개음화의 종류와 특성

구개음화 하면 흔히 |나 반모음 | 앞에서 ㄷ, ㅌ, ㅌ이 ㅈ, ㅊ, ㅉ으로 바뀌어 실현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 구개음화는 ㄷ이 ㅈ으로 된다는 점에서 ㄷ구개음화라 불리어 오고 있다. 이 ㄷ구개음화 외에 국어에는 이와 유사한 ㄱ구개음화와 ㅎ구개음화 현상이 있다.

이러한 구개음화 현상 외에 구개음화나 구개음 관련 현상도 있다. 구개음화가 일어나던 시기에 구개음화와 반대되는 변화를 보이는 과도교정 현상, |나 반모음 | 앞에서의 ㄴ 탈락 현상, 구개음 ㅈ, ㅊ 앞의 ㄴ 첨가 현상, 구개음화

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반모음 | 첨가 현상, 그리고 구개자음 뒤에서의 반모음 | 탈락 현상 등이 그러한 현상들이다.

3.1. 구개음화

3.1.1. <ㄷ>구개음화

현대국어에서 <ㄷ>구개음화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이나 명사의 마지막 자음 <ㄷ, ㅌ>이 |나 반모음 |로 시작하는 접사 앞에서 각각 <ㅅ, ㅆ>으로 바뀌어 실현 되는 현상이다. 다음 예들이 <ㄷ>구개음화의 예들이다.

굳이 → [구디] → [구지], 같이 → [가티] → [가치],
 맑이 → [마디] → [마지], 팔이 → [파티] → [파치].

'굳이'와 '같이'의 경우, 그 어간 뒤에 접사 '-이'가 오면 [구디]와 [가티]로 된 다음 어간의 마지막 자음 <ㄷ, ㅌ>이 각각 <ㅅ, ㅆ>으로 되어 [구지]와 [가티]로 실현된다. '맑이'의 경우 '맑' 뒤에 접사 '-이'가 오면 [마디]로 되었다가 <ㄷ>이 <ㅅ>으로 바뀌어 [마지]로 되며, '팔'에 조사 '이'가 결합되면 [파티]로 되었다가 [파치]로 실현된다.

<ㄷ> 뒤에 파생접미사 '-히-'가 오는 경우에도 <ㄷ>과 <ㅎ>이 결합하여 <ㅌ>이 된 다음 |나 반모음 | 앞에서 <ㅌ>이 구개음화되어 <ㅆ>으로 실현된다. 예: 달히다:[다치다], 굳히어:[구터] → [구쳐] → [구처].

이러한 <ㄷ> 구개음화 현상은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이나 명사 다음에 형식형태소가 오는 경우에만 일어난다. |나 반모음 |로 시작하는 실질형태소가 오게 되면, 그 앞에 오는 <ㄷ>이나 <ㅌ>이 구개음화되는 것이 아니라 <ㄴ>이 첨가되는 현상이 일어나 <ㄷ>이나 <ㅌ>은 구개음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예: 발+이랑 [반니랑].

<ㄷ>구개음화는 서북 방언을 제외하면 형태소의 내부에서는 이미 완결되어 형태소나 단어가 재구조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서북 방언에서는 구개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으며, 반모음 |가 <ㄷ, ㅌ, ㄸ> 다음에 오면 반모음 |가 탈락되는 특성을 보여준다(예: 덩거당[덩거당; 정거장]).

그런데 "견디다, 느티나무, 마디, 어디" 등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예들에서는 <ㄷ, ㅌ>이 | 앞에서 구개음 <ㅅ>이나 <ㅆ>으로 바뀌지 않는 것

이다. 그 이유는 이들이 중세국어 시기에는 견디다, 느티나무, 마디, 어디 등의 어형이었기 때문인데, 이들 어형에서 ㄷ, ㅌ 다음에 오는 이중 모음이 ㅌ로 바뀌기 전에 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나 구개음화가 일어나던 당시에는 ㄷ, ㅌ이 구개음화의 환경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ㄷ구개음화는 16세기 중기경 남부방언 자료에서 보이기 시작하므로 남부 방언에서 먼저 일어났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서북 방언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 오늘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간주된다.

3.1.2. ㄱ구개음화

ㄱ구개음화는 ㄷ구개음화와 달리 형태소 내부, 그것도 제1음절에서 일어난다. 즉 ㄱ구개음화는 형태소 내부에서 ㅌ나 반모음 ㅌ 앞에서 구개음이 아닌 ㄱ, ㅋ, ㆁ가 각각 구개음 ㅌ, ㆁ, ㆁ로 바뀌어 실현되는 현상이다.

길 > [질], 키 > [치], 견디다 > [전디다] > [전디다]

이 예들에서는 ㅌ나 반모음 ㅌ 앞의 제1음절 위치에서 ㄱ, ㅋ, ㆁ가 각각 ㅌ, ㆁ, ㆁ로 바뀌어 실현됨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기다, 먹여’처럼 제2음절 이하인 경우에는 ㄱ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고 ㅌ나 반모음 ㅌ 앞에서도 ㄱ이 그대로 실현된다.

ㄱ구개음화는 남부 방언이나 함경 방언, 그리고 중부 방언의 일부 지역에서 일어났지만 대부분의 중부 방언이나 평안 방언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ㄱ구개음화 역시 16세기와 17세기 경에 남부 방언(전라 방언, 경상 방언)의 자료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이 현상은 16·7세기경에 남부 방언의 어느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어 확산된 것으로 생각된다.

3.1.3. ㅇ구개음화

ㅇ구개음화도 ㄱ구개음화와 마찬가지로 형태소 내부, 그것도 제1음절에서 보인다. 즉 ㅇ구개음화도 형태소 내부에서 ㅌ나 반모음 ㅌ 앞에서 구개음이 아닌 ㅇ가 구개음 ㅌ[ʃ]로 바뀌어 실현되는 현상인 것이다. ㅇ구개음화는 다음 예들에서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힘 > 심[*ʃim*], 형 > 성[*seŋ*], 효자 > 소자[*sodʒa*], 헤다 > 세다[*sedə*]

이 예들은 |나 반모음 | 앞에서 ㅎ이 ㅅ으로 된 예들이다. 그러나 이 예들 중에서 실제 ㅎ구개음화를 보여주는 예는 ‘힘>심’뿐이다. ‘형>성, 효자>소자, 헤다>세다’ 등은 ㅎ이 ㅅ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그 뒤에 반모음 |도 없으며, 그리하여 변화된 ㅅ도 구개변이음 [ʃ]가 아닌 치조음 [s]로 실현된다. 그러므로 이 후자의 예들은 ㅎ구개음화 현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예들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ㅎ은 |나 반모음을 항상 앞서는 환경에 있었으며, 그 ㅎ이 |나 반모음 | 앞에서 ㅅ으로 바뀐 것이므로 앞에서 살펴본 구개음화와 다르지 않은 것이다. ‘형’의 ㅎ은 반모음 | 앞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 ㅅ이 되었으며(예: 성), 그 ㅅ은 반모음 | 앞에서 구개변이음인 [ʃ]로 실현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형>성’은 어느 시기에 ㅎ이 구개음화되어 구개음 ㅅ[ʃ]로 실현되었지만 구개음 뒤에서 반모음 |가 탈락됨으로써 [ʃ]도 [s]로 바뀌어 ‘성’으로 된 것으로 간주된다. 말하자면 현대 국어의 ‘성, 소자, 세다’ 등은 과거에 일어났던 ㅎ구개음화의 흔적을 가지고 있을 뿐인 것이다.

ㅎ구개음화도 16세기 경부터 남부 방언에서 먼저 보이기 시작한다. 역시 서북 방언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남부 방언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났으며, 중부 방언에서는 일부의 어휘에 한정되어 일어났다.

3.2. 구개음화나 구개음 관련 현상

3.2.1. 과도교정

구개음화 관련 현상으로 먼저 앞에서 살펴본 구개음화 현상과 관련되는 현상으로 구개음화에 대한 과도교정 현상을 들 수 있다. ‘질들이다>길들이다, (덤심)>점심>검심, (딤치)>침치>김치’ 등에서 보듯이, |나 반모음 | 앞에서 원래 구개음이던 것이나 아니면 ㄷ구개음화의 결과인 구개음 ㅈ 등을 오히려 비구개음인 ㄱ으로 바꾼 것이다. 이는 화자들이 구개음화가 일어난 어형을 비표준어의 표지로 생각하여, 구개음화를 적용시키지 않으려는 의식에서 생긴 현상으로 추정된다.

이 현상은 |나 반모음 | 앞에서 원래의 ㄷ이었던 것을 의식하여 구개음화된 스을 ㄷ으로 되돌리는 데에서부터 시작되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구개음화가 확산되면서 원래 구개음이었던 것인지 치조음이었던 것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서 원래의 구개음(또는 ㄷ구개음화의 결과인 구개음도 포함하여)이었던 것까지도 비구개음인 ㄷ으로 바꿈으로써 생긴 현상으로 간주된다. ㄷ구개음화가 일반화되기 전에는 원래의 스을 ㄷ으로 바꾸었지만 ㄷ구개음화가 일반화되고부터는 원래의 스을 ㄱ으로 바꾸는 쪽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과도교정의 방향이 바뀐 이유는 이 시기에 ㄷ구개음화가 일반화되어 스을 ㄷ으로 교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었으리라 생각되며, 또 다른 한편으로 남부 방언에서는 ㄱ구개음화가 확산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과도교정 현상은 ㄷ구개음화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ㄱ구개음화, ㅎ구개음화에 대해서도 일어났지만, 모두 구개음화 현상에 휩쓸려 사라졌고 단지 원래의 스을 ㄱ으로 과도교정한 예들만 현대 중부 방언에 보이며 북한의 동북 방언 등의 일부 지역에는 이러한 현상의 결과가 남아 있다.

3.2.2. ㄴ의 탈락과 첨가

두음법칙으로 알려져 있는 단어의 제1음절 위치에서 |나 반모음 | 앞의 ㄴ이 탈락하는 현상은 구개음과 관련이 있다. '니'이(齒), '뇨'잎(葉), '녀자'여자' 등의 예들은 근대국어 시기에 ㄴ이 |나 반모음 | 앞에서 구개음으로 바뀌고 나서 그 구개음 ㄴ과 | 또는 반모음 |의 연결체에서 어두의 ㄴ이 탈락된 것이다. 이 현상은 ㄴ이 |나 반모음 앞에서 구개변이음 [ɲ]으로 바뀐 다음 |나 반모음 | 앞에서 구개음 [ɲ]이 탈락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음운론적 층위에서 일어나는 구개음화 현상의 결과는 아니다. ㄴ /n/이 |나 반모음 | 앞에서 구개변이음으로 실현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난 다음 그 뒤에 오는 |나 반모음 | 앞에서 구개변이음 [ɲ]이 탈락되었다는 점에서 ㄴ의 구개변이음으로 실현되는 음성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개변이음으로 되고 나서 |나 반모음 | 앞에서 그 ㄴ이 탈락된다는 점에서 음운현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ㄴ이 구개 변이음으로 실현되고 그 다음에 오는 |나 반모음 | 앞에서 ㄴ이 탈락하는 이른바 두음법칙에 해당하는 이러한 예는 국어에서 어두에만 한정되어 일어난 것은 아니다. 경상도 방언에서는 '가니, 보니까' 등에서의 ㄴ이 어중의 | 앞에

서 탈락되어 '가이(가니), 보이까네(보니까)' 등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한편 구개음화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남부 방언의 경우 구개자음 ㅅ, ㅈ, ㅉ 앞 음절의 말음 위치에 ㄴ이 첨가되는 현상이 보인다. 이러한 현상 역시 구개음 ㅅ, ㅈ, ㅉ 앞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ㅅ, ㅈ, ㅉ의 구개성과 관련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까치>간치, 고치다>곤치다' 등. 이러한 현상은 국어사 문헌 자료에도 보인다. '더디다(投)가 현대 국어에서 '던지다'가 되었는데, 이는 '더디다>더지다'의 변화를 겪은 후 구개음 ㅅ의 선행 음절말 자음으로 ㄴ이 삽입되어 '던지다'가 된 것이다.

3.4.3. 반모음 ㄹ의 첨가와 탈락

이 밖에 ㄹ모음 역행동화라고 일컬어지는 음라우트 현상도 역사적으로 보면 구개음 또는 구개음화 현상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음라우트 현상은 앞 음절의 후설모음 ㅏ, ㅑ, ㅓ, ㅕ가 뒤 음절의 전설모음 ㄴ나 반모음 ㄹ에 영향을 받아 각각 전설모음 ㅕ, ㅖ, ㅗ, ㅛ로 실현되는 현상이다. 이 음라우트 현상은 동화현상으로서 ㅕ, ㅖ, ㅗ, ㅛ가 단모음임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현대국어의 일부 방언에서처럼 '학교'가 '하이교[hayk'yo]'라고 발음되는 것처럼, 뒤에 오는 ㄴ나 반모음 ㄹ에 의해 선행 음절의 후설모음이 전설모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모음 ㄹ을 첨가하는 현상으로 출발하였다면, 국어의 음라우트 현상은 반모음 ㄹ을 첨가하는 현상으로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즉 구개음화와 동일한 환경, 즉 ㄴ나 반모음 ㄹ 앞 음절의 모음에 반모음 ㄹ을 첨가하여 이중모음을 형성하는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반모음 ㄹ가 첨가된 이중모음은, 근대 국어 시기에 일어나는 이중모음 ㅕ, ㅖ, ㅗ, ㅛ의 단모음화 현상과 궤를 같이하여, 각각 단모음으로 실현됨으로써 오늘날의 음라우트 현상으로 바뀌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현상은 ㄴ나 반모음 ㄹ에 의해 일어난다는 점에서, 그리고 선행하는 음절의 후설모음(단모음)에 반모음 ㄹ, 즉 구개음의 특성을 첨가하여 이중모음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구개음화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구개자음과 ㄴ나 반모음 ㄹ가 결합될 때, 구개자음 뒤에서 반모음 ㄹ가 탈락되는 현상도 구개음과 관련이 있다. '던디>천지>천지, '가지어 → 가져 → [가저], 고치어 → 고쳐 → [고쳐]' 등. 이들 예에서처럼 구개 자음 뒤에서 반모음

ㅣ가 탈락되는 것은 구개음 ㅅ, ㅆ과 반모음 ㅣ가 동일 발음 위치가 이어지기 때문에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하여 구개음 연결체에서 반모음 ㅣ를 탈락시키는 것으로 간주된다.

4. 표준어·맞춤법과 관련하여

이상에서 국어의 구개음화의 특성을 살펴보고 구개음 또는 구개음화 관련 현상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러한 구개음화 현상과 구개음 관련 음운현상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표준어나 맞춤법에서 인정되는 정도도 다르다.

ㄷ구개음화는 구개음화가 일어난 어형이 표준어로 인정되었다. 단어나 형태소 내부에서 구개음화가 모두 일어나 그 어형이 이미 재구조화되었기 때문에 ㄷ구개음화가 일어난 어형을 표준어로 채택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단지 ㄷ, ㅌ으로 끝나는 실질형태소에 ㅣ나 반모음 ㅣ가 결합되어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같이, 굳이, 간혀’ 같은 경우에는 형태소나 단어의 기본형을 정하여 형태의 단일화를 피하기 위해 맞춤법 규정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어형을 적도록 하고 있다(제3장 제6항).

그러나 ㄱ구개음화와 ㅎ구개음화가 일어난 어형은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맞춤법에서도 이러한 ㄱ구개음화와 ㅎ구개음화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 단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대부분의 사전에서 표제어로 제시하듯이 ‘김치’가 과도 교정된 ‘김치’, ‘길들이다’가 과도 교정된 ‘길들이다’, ‘디새’가 구개음화되어 새로이 형성된 ‘기와’ 등은 표준어로 인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국어의 표준어를 서울말 중심으로 정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ㅣ나 반모음 ㅣ 앞에서 ㄴ이 구개음화되어 탈락되는 현상은 어두 위치에서는 인정되었지만(맞춤법 제2장 제5절 두음법칙), 어중에서의 ㄴ 탈락 현상은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다. 구개음 ㅅ, ㅆ, ㅈ 앞의 선행 음절말 위치에 ㄴ이 첨가된 어형의 경우에는 ‘던지다’처럼 일부 어휘에 국한하여 표준어로 인정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표준어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모음 ㅣ 첨가 현상의 결과로 생각되는 음라우트 현상이 일어난 일부 어형은 표준어로 인정되었으나(새내기, -쟁이 등) 대부분의 어형이 표준어로 인정되

지 않았다.

구개음 $z, ʒ, ʒ$ 뒤의 반모음 l 탈락 현상은, 형태소 내부에서 이미 완결되어 어형이 재구조화되었기 때문에(던디>천지>천지 등) 반모음 l 가 없는 어형이 표준어로 인정되었다. 그러므로 표기에서도 반모음 l 가 없는 어형으로 적어야 한다. 그러나 형태소 결합, 즉 용언의 활용형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 용언 활용형의 '가져, 고쳐, 가서서' 등과 같은 구개음과 반모음 l 의 연결체에서, 반모음 l 가 탈락되는 현상은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만(표준발음법 제5항 다만 1). 맞춤법 규정 제4장 제5절(준말) 제36항의 규정(l 뒤에 $ㄱ$ 이 와서 $ㄱ$ 로 줄 적에는 $ㄱ$ 로 적도록 한다)에 따라 반모음을 표기해 주어야 한다(예 가지어 → 가져). 그러므로 $z, ʒ, ʒ, s, ʃ$ 다음에 반모음 l 가 연결된 경우, 반모음 l 를 발음하지 않는 것이 표준 발음이지만, 표기에서는 이들 자음자 뒤에 $ㄴ, ㄷ, ㄹ$ 로 적는 것이 맞춤법 규정에 맞는 표기이다.